

“순천 무공천은 정권교체 위한 교육책”

손학규, 전남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설득 나서 의원들 강력 반발... 4일 지역언론사 대표 간담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재보선과 관련, 순천 양보(무공천) 의지를 굳히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손 대표는 2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순천 양보에 대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대표는 “야권 연대를 위한 교육지책이자 내년 정권 교체에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한 끝에 이번 재보선에 순천지역 무공천으로 가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다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손 대표는 오는 4일에도 광주를 방문, 지역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어 저녁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손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순천에 공천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손 대표가 순천 무공천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정치계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의원 대부분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기 의원은 “대통령과 단재장 선거를 집행할 공익이 있어 연대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그런 것이 없어 가능하지 않으며 굳이 하려면 후보를 내서 단일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효석 의원은 “호남 없는 민주당이 없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주승용 의원은 “연대는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국민참여당과는 몰라도 민주노동당과는 통합이 되겠나”, 우윤근 의원은 “호남 양보”를 얘기하는데 어디를 양보하라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각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 유선호·김영록·이윤석 의원 등도 “민노당과의 관계 설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이번에 연대한다고 내년 대선에서 민노당이 후보를 안 내겠나”라고 말하는 등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김성근 의원만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가는데 진보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는 (순천 무공천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손 대표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지책이나 이해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김경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국정원 직원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만난 사람은 기업에 하는 일반인이다”며 한 일간지에 보도된 자신의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남뉴스

민주, 정국 현안 활동가 정책당원으로 영입 추진

민주당은 2일 무상급식·장애인 인권·무상보육 등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는 활동가를 정책당원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이슈와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지자가 당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마당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의 외연과 정책기반 확대를 통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것으로 당내 토론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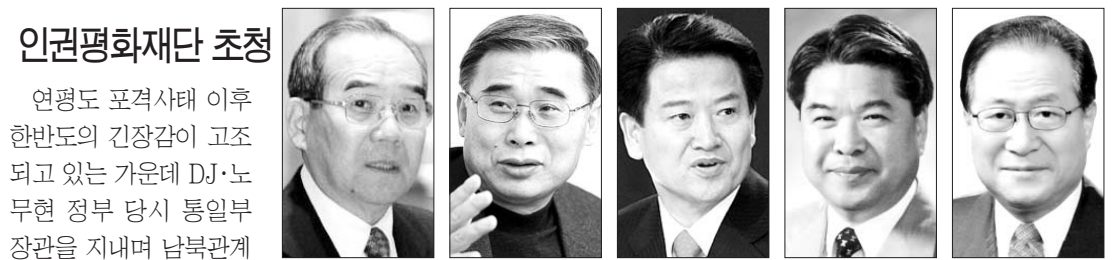
박지원 “호텔서 만난 인사는 기업가”

‘국정원 직원 회동’ 부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최근 국정원 간부와 극비 회동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나오자 박 원내대표는 ‘오보’라며 강력 부인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2217호실에서 국정원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이하 A씨)와 밀담을 나눴다. 이날 오후 8시45분쯤부터 한 시간 가량 이뤄진 두 사람의 만남은 최근 ‘실패한 공작’으로 드러난 국정원 요

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대화에선 국정원의 곤혹스러운 입장과 국정원 내부 상황과 관련한 민감한 얘기가 오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대화를 마치고 호텔 로비로 나온 박 원내대표는 “무슨 일로 호텔에 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에서 인적이 와서 만나고 간다”고 답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 보도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제의 보도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서 식당 등 사업을 하는 기업가 신모씨와 만

났다”면서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공신력 있는 남의 언론에 대해 오보다, 잘못이라고 하긴 그렇고, 또 내용을 보면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보도에 등장하는 ‘국정원 간부’가 최근 당·정·청 회동과 원세훈 국정원장 등에 대해 발언한 데 대해 “신씨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 관련 기사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기자가 문 모르고 들리는 얘기를 간헐적으로 듣고 쓰다 생긴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리어트호텔 측은 “이틀 전 기업인 신모씨가 예약을 했다”가 당일 오후 투숙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盧 정부 통일전도사들 광주서 잇단 강연



인권평화재단 초청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DJ·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장관을 지내며 남북관계를 주도했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아 강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권과 세계평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표)은 2일 천주교 사순절(예수부활축일 전 40일간)을 맞아 ‘함께하는 세상 사순절 특별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위기와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3~4월 두 달간 매주 화요일 광주 지역 5곳의 성당에서 펼쳐진다. 15일 오후 8시 북구 오치동성당에서는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22일에는 남구 봉선제서성당에서 미사 후 이종석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이사가 강연하며 29일에는 광

“한상률·에리카 김 ‘기획입국’ 아닌가”

무상복지·동남권 신공항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대정부 질문 2일 열린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상률 전 국무총장 및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 등을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이날 전 청장 수사와 관련,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산업 특별세무조사의 배경과 청와대 기획사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시기에, 자신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지 너무도 의아하다. ‘BBK사건’과 ‘한상률 게이트’를 한 방에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정략적 술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가세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동남권 1300만명의 (주민) 가운데 1000만명이 경남 밀양 신공항을 요구하고 있어 후보지 경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과거 영종도가 (공항 부지로)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소음발생 민원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해안 지역으로 장애물이 많지 않아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에 복지 논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언급,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재정 대책도 주먹구구로 하면서 ‘무상 시리즈’ 카드를 흔드는 것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김준천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촘촘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세계적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딱히 눈에 띌만한 복지정책을 이루어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역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갈수록 꼬이는 영수회담

손 “최소한 사과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갈수록 꼬여가는 양상이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장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한 번 만나자’는 의사를 보였지만 손 대표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영수회담의 전제 조건

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 영수회담 성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일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을 재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사과 또는 제발 방지 약속을 사실상 회동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손 대표는 이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여야 간의 대화를 소통의 기회를 한 번 가졌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전제 조건이 수용돼야 회동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대화에 전제 조건을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 대표가 회동에 조건을 건다면 대통령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원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일건강 발목 펌프 운동봉
당신은 약을 전혀 먹지 않고 불노장생(무병장수)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1일 3,000회(소요시간 약 30분) = 10,000보 걷는 효과!!
2011년 신제품 목침 겸용 발목펌프 운동봉이런?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cm 반원목침에 스프링과 소음진동방지대가 장착되어 있어 취침 시는 목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상하면 발목펌프 운동봉으로 평상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펌프 운동기구
■ 목재 운동봉 가격 : 39,000원 무료배송!!
■ 목침 겸용 가격 : 45,000원 무료배송!!
TEL 062-672-2002
H. P 010-7510-20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2층
온라인계좌 *광주은행 125-121-002455 *농협 601154-52-335334 *예금주: 서영섭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 연극, 공연,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다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몬기', 스포츠 게임 한국, 워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아쿠아 렌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문의 전화: (주)쉐이커스 070-7581-7766, 010-3549-9358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탄열시트방수**
엔지니어링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1. 여름철에는 전기로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본사 전속모델 벨리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